

外反된 굽에 一條의陰刻帶線이 있다.全體가 크고 卍字의肩胛部가 많이 깨어졌으며 肩部에는 補修해서 使用한 흔적도 있다.

青銅臺付鉢·器身은 깊숙한 사발형인데 口緣의 外反이 없이 거의 直立하고 口緣의 上面은 비스듬히 모지다가 外面은 말려 붙어서 마음했다. 굽은 높직하고 밑에 一條의陰刻帶線이 있다.臺와 器身은 他例에서 흔히 보는 器身과 臺를 따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고 一鑄한 것 같다.

鍾高二七·一cm 甬筒高七·五cm 口徑一六·九cm 肩幅一一·〇cm
淨瓶高四一·五cm 九面圓筒高一·五cm 底徑一〇·三cm
鉢高一〇·五cm 口徑一四·五cm 底徑八·四cm 臺高一二·三cm

註

①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碑」 崔淳雨 美術資料第十號 一九六五年十二月 國立博物館

② 「三川寺入口磨崖如來立像」 鄭明鎬 考古美術二卷五號 一九六一年五月 考古美術同人會

③ 「青磁象嵌雲鶴文梅瓶」 國寶圖鑑一三三頁(圖版及解說) 一九五八年 國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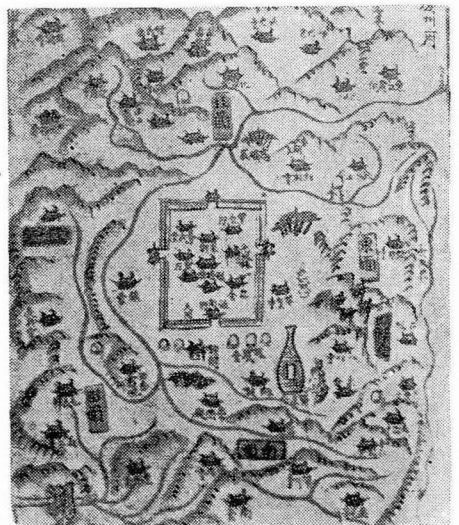
葆華閣所藏의 「小華輿圖」

全 映 雨

先考의 蒐集品整理의 一環으로 葆華閣所藏漢籍目錄의 出版準備作業中 許多한 善本과 더불어 多數의 地理學上 重要한 資料가 될 地圖類가 보여 其中 하나인 「小華輿圖」를 여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本 「小華輿圖」는 一匣五冊 總三三八面으로 各冊을 木, 火, 土, 金, 水로 分類하여 第一冊에는 慶尙道, 二冊에는 全羅道 三冊에는 京畿道, 忠清道 四冊에는 黃海道, 平安道 五冊에는 江原道, 咸鏡道를 各各 收錄 全八道를 道別로 細密하게 그려 보였고 各道 卷頭에는 該當道의 全圖를 넣고 그後에 그道에 屬하는 牧, 府, 縣의 各圖를 收錄하고 있다.

第九卷 第一號 通卷九十號



各冊의 크기는 縱橫이 各各 一六·五cm 一七·一cm로서 紙質은 매우 敦厚한 韓紙이며 變形된 蓮花唐草文바탕의 黃褐色 表紙로 아담하게 裝幀되었다. 每半葉마다 比較的 靑色으로 濃淡을 設드려 立體感있게 設

彩하였으며 各主要地名은 黃, 赤의 바탕위에 各各 表記하였고 重要 建物及 遺構와 遺蹟을 또한 纖細한 筆致로 一目瞭然하게 圖錄하고 있어 비 作者는 未詳이라 하더라도 非凡한 高手의 솜씨임을 直感할 수 있다. 本輿圖는 郡治를 中心으로 하여 山川, 島嶼, 堤堰, 池澤, 橋梁等을 表記하고 城郭 官衙 鄉校 獄樓臺 寺刹 塔婆 書院 驛舍 倉陵墓等 要所 要所의 名所를 詳細히 收錄 繪圖하고 있어 距今 날로 湮滅되어 가는 全國各地의 名勝遺蹟을 傳示하여 줄에 있어 크나큰 도움이라 하겠다. 특히 京畿道 忠清道의 一冊에는 各 郡縣圖의 欄頭에 郡縣名과 그 古號 及 서 邑의 里數와 日程 面數 戶數 帳付結數 그리고 軍額 書院 倉 津 烽 驛 驛馬 等의 數를 仔細히 記錄하고 있어 史料로서의 價値를 한층더 加해 주고 있다.

이의 一例로 本輿圖中 慶州府圖에 보면 骨窟과 石窟이라 하여 두個의 建物이 보이는 바 이는 筆者가 紹介한 바 있는 謙齋書嶠南名勝帖의 慶州骨窟石窟圖 考古美術 第五卷 第二號 參照)와 더불어 더욱 慶州石窟에 있어서 前室存在의 可能性을 示唆해 주고 있다.

또한 本輿圖는 金正浩의 大東輿地圖가 鄭尙驥의 東國大地圖 等과 比較하여 볼때 이는 縮尺方野式의 形態는 아니나 그 地形의 位置와 距離

等이 무던히 正確하다 하였으나 間或 方位에 있어서 一定한 差異가 있음을 볼 수 있으니 例를 들면 慶尙道の 恭原圖와 軍威圖를 보면 北向의 方位가 西로 九〇度 가량 回轉되었고 南海圖를 보면 南向의 方位가 北으로 一八〇度 倒置되었으며 忠淸道の 唐津圖 亦是 北向의 方位가 西로 九〇度 가량 倒轉되었고 陰城圖 木川圖 結城圖 等도 西向方位가 北으로 九〇度 가량 差異져서 그러저 있는 바 이는 大部分 主山을 上方으로 잡아 透視한 關係로 自然的으로 생긴 視點의 差異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狹小한 紙面에 그것도 半葉으로 된 片面에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려면 이 程度의 伸縮性있는 方位設定은 不可避하였으리라 생각된다.

本輿圖는 序나 跋이 全無하여 製作年代를 正確히 밝힐 수는 없었으나 京畿道の 楊州圖에 보면 景宗의 懿陵 景宗四年 一七二四 A·D·에 薨去) 이 나타나 있고 景宗元年(一七二二)에 死去한 英祖 東宮時의 後宮이었던 靖嬪 李氏의 墓가 보이는데 反하여 高陽圖에 보면 英祖三三年(一七五七) 薨去한 英祖 貞聖王后徐氏의 弘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本輿圖의 製作은 英祖元年에서 英祖三三年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大差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本輿圖 京畿總圖 首張의 右側 上隅에 「洪魯軒圖書記」라는 長方形朱印이 보이며 每册末張 左側欄下에는 「臣印洪麒」와 「小案一字端三」이라 새겨진 두個의 方形朱印이 各各 보이거 同時 洪氏藏書로도 屬했던 일이 있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洪城高山寺 佛像의 腹藏調査

文 明 大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佛腹藏은 지난 一九六七年 二月 一三、二四日 間 이 方面에 留意하고 있는 姜昔泉스님이 高山寺(忠南洪城郡結山面)의 一木佛에서 調査했던 것으로 당시의 調査記錄과 그 증언을 간추리고 약

간의 고찰을 덧붙여 소개할 따름이며 상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이 腹藏을 간직하고 있는 佛像은 香木으로 빚은 높이 五二cm의 坐像이다. 이전에는 어떤 인연인지 무명이 잠시 모셨다가 다시 高山寺에 奉安한 佛像인데 廢佛되어 없앨려는 것을 마침 昔泉스님이 調査하게 되어 貴重한 腹藏을 發見하고 다시 法堂에다 奉安하였다 한다. 廢佛되기 직전에 애써 좋은 作品을 남겨준 昔泉스님께 감사를 드린다.

× × ×

가장 뒷편의 頭部에 舍利遺物이 있고 中心部 바로 위에 永嘉禪師證道歌、心部에 종으로 된 喉鈴筒、이 筒을 發願文과 觀音 禮儀文이 앞뒤쪽으로 싸고 있으며 그 아래로 金剛經、珠玉類가 차곡 차곡 쌓여 있다.

(1) 佛舍利

佛頭部에 佛舍利를 奉安한 것은 佛腹藏을 넣기 시작한 때 보다 오래된 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北魏時譯의 佛像量度經에 「像頭部에 佛舍利를 넣기도 한다」라는 말로서도 짐작된다.

주황색과 하늘색 비단 겹보재기 속에 琉璃製舍利瓶이 있다. 병은 높이 二cm 넓이 一·九cm로 아래 위로 구멍(徑七mm) 四mm)이 뚫렸다. 양입구는 香木으로 막았다. 구멍속에 흰색 三분은색 一 黠色 一 노란색 二 等 七粒의 舍利를 넣고 있다. 이것은 諸佛腹藏壇儀式에 보이는 舍利 七粒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으며 이 舍利는 내 생각으로는 同書에 「以水晶琉璃等寶代用之」라 했듯이 유리로써 모조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같은 글에는 喉鈴筒속에 奉安된다 했는데 여기서 頭部에 安置된 것은 옛식 이 남아서인지도 모르겠다.

(2) 喉鈴筒

이 筒은 주황색, 하늘색, 흰색, 자주색, 황색의 五色비단에 싸여 五色실로 묶었는데 金、銀製가 아닌 韓紙로 그냥 싸고 있다. 紙表面에 東西、南黑이라 朱書였는데 方位의 表示인지 眞心種子를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다. 韓紙속에는 東、西、南、北、中의 다섯 묶음이 結合東되고 그 가운데 內喉鈴筒이 놓였다. 이 筒이야말로 原喉鈴筒이며 이 속에 腹藏遺物이 奉安된다. 그러나 지금은 다만 東、西、北、南、中을 가리키는